

우리말 표기 수단의 탄생과 세조대 佛典 번역의 이면*

申相弼**

目 次

1. 한문문화권의 전파와 번역
2. 자국 표기 수단의 탄생과 번역의 시작
3. 조선 전기 국가사업으로서의 출판과 불전 언해
4. 유교 경전 구결과 그 기록들
5. 조선 전기 번역을 통한 문명 전환의 이면

| 국문초록 |

우리는 중국 문명의 거대한 흐름과 역사를 함께 해왔다. 그만큼 한자문화권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오히려 이 점에서 한문을 적극 수용하고 높은 수준에 도달함으로써 자기 존재를 분명히 각인시켜왔다. 그리고 그 과정은 한문에 대한 이해이자 자기화 과정이며, 달리 말하자면 번역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신라 薛聰의 經書 口訣의 파급력과 崔致遠의 수준 높은 문학적 성취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고려를 거치며 깊이를 갖춘 불교 중심 사회는 그 학적 역량을 불전의 번역으로 제고하였다. 다만 고유의 표기수단을 갖지 못한 관계로 借字表記를 통해 불교의 교리를 전수하고 학습하였다. 釋讀口訣이 그것이다. 그런데 석독구결은, 14세기를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3068415)

**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교수.

지나며 禪宗이 불교계의 주도권을 얻으면서, 수양과 대중을 고려한 音讀口訣로 중심을 옮겨갔다. 우리말 어순을 고려한 석독구결은 불교 교리의 이해를 증시하는 과정에서 불전에 대한 깊이를 더할 수 있었고, 이렇게 다진 불교계의 역량을 기반으로 대중화 경향에 음독구결의 간편함을 추구한 것이다.

이때 明清 교체의 동아시아 전환과 함께 조선이 건국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귀족 중심의 불교 사회가 국왕과 사대부 주도의 유교 국가로 탈바꿈한 것이다. 더구나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와 반포는 문명 전환의 유용한 도구가 되었고, 번역의 혁신을 가져왔다. 그 이전은 물론 이후로도 구결을 통한 번역은 여전히 유효하였다. 태종을 시작으로 유교 경전과 불전에 대한 구결 작업이 이어졌고, 세종은 훈민정음의 창제와 동시에 실질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명 전환의 국가적 기획은 세조가 계승하여 직접 유교와 불교의 경서에 대한 구결과 언해 작업을 주도하였다. 나아가 농서, 의서, 관용 문서에도 적극 활용함으로써 독자적인 표기 수단을 통한 지식의 보편화를 기획하였다. 결론적으로 조선 전기의 번역을 통한 문명 전환의 국가적 기획은 한자문화권의 공고함을 넘지는 못하였다. 이후 성종에 이르러 문화적 전성기를 맞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유교 중심의 국가 체계를 확립했다는 점에서는 다양성을 잃었다고 하겠으며, 번역을 통한 자기화의 측면에서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는 깊어졌으나 한글 번역의 보편화와 대중화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조선전기의 문명전환은 국왕 중심의 국가 주도이자, 집현전 출신 학자와의 협업이었다는 점에서 그 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그 재조명 과정에서 경주된 다양한 노력과 쇄신을 사대부사회의 현실적 이면에서 읽어내기 위한 한 과정이다.

핵심어 조선전기, 번역, 문명전환, 한문, 훈민정음, 언해, 경서, 불전.

1. 한문문화권의 전파와 번역

연구자들에게 한국 한문소설사의 첫머리를 장식한 작품으로 유명한 최치원 관련 이야기가 있다. 현전하지는 않지만 수록 작품의 흔적만 추적되는 『殊異傳』에 실려 흔히 『崔致遠』으로 불리는 작품이다. 우리나라 한문학의 비조로 지목되면서 12세의 어린나이에 唐나라에 유학을 하여 文名을 떨친 역사적 인물이다. 그런 그가 서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모국 신라의 6두품이라는 신분적 한계로 귀국 후 겪은 좌절에 대한 대중들의 안타까움과 관계된다고 이해하고는 한다. 작품의 마지막에 南山(경주 금오산) 淸涼寺, 合浦縣 月影臺, 智異山 雙溪寺 등으로 언급한, 지금도 전국적으로 그의 전설이 깃든 다양한 지역과 유적들이 이를 대변한다. 타고난 실력을 지닌 才子의 현실적 불우에 대한 민간의 연민이 비현실적 존재인 비련의 佳人과 짝하게 하는 구도를 설정함으로써 위안의 자료를 통한 하나의 문학적 비극미를 구성한 것이다. 傳奇라는 양식적 구도이다. 여기서는 이런 서사적 논의는 놓아두고 잠시 다음의 장면에 주목해 보기로 한다.

한참 후에 두 여인이 나란히 이르는데 진정 한 쌍 明玉이요, 두 떨기 瑞蓮이었다. 치원은 꿈인 냥 놀랍고도 기뻐 인사를 갖추고 말하였다. “치원은 海島의 미천한 서생이자 세속의 말단 관리인데 어찌 두 분 선녀가 외람되어 풍류를 돌아보아 문득 남긴 장난 섞인 말에 바로 아름다운 발걸음을 드리우실 줄 기대나 했겠습니까.” 두 여인은 미소만 지을 뿐 말이 없었다. 치원이 시를 지었다.

꽃다운 밤 다행히 잠시 가까이 할 수 있었건만
무슨 일로 말없이 저무는 봄을 마주하는가
秦羅敷를 만났다 여겼건만
息夫人일 줄은 몰랐다네

이에 붉은 치마 여인이 발끈하여 입을 열었다. “처음엔 談笑를 나누리라 했던단 문득 모멸을 당했네요. 식부인은 일찍이 두 남편을 따랐지만 賤妾은 아직 한 지아비도 섬기지 않았답니다.” “부인에게선 말은 앓을지언정 하신 말씀은 꼭 맞습니다 그러.” 두 여인이 모두 웃었다.1)

중국 溧水縣尉가 되어 도착한 최치원이 고을의 雙女墳에 남긴 시를 인연으로 무덤의 주인인 자매와 만나는 대목이다. 유명을 달리한 여인들과의 만남이라지만 첫 만남의 어색함과 청춘남녀의 발랄한 破寂이 짧은 장면에 흥미롭게 구성된 사례로서 기념할만하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은 18세의 꽃다운 남녀가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쌍녀분의 쓸쓸한 비애를 추도하며 남긴 시에 答詩로 서로의 文才까지 한껏 감상한 후에 뜻밖의 미인을 둘이나 마주한 것이다. 그래서 최치원은 ‘驚喜’로 고조된 마음을 겨우 달래며 먼저 자신의 소개를 곁들인 말을 건네 본다. 하지만 미소는 지으면서도 묵묵부답이다. 조금 더 어색해진 순간을 타개하기 쉽지 않다.

이에 최치원은 다시 서로를 인연해 주었던 시로 상황을 벗어나본다. 다만 정격이 아닌 과격으로 시도한다. 먼저 늦은 봄이나마 다행히 만났는데 어찌 말이 없냐며 타박하고는 바로 이어 진나부와 같은 요조속녀인줄 알았더니 병어리로 지낸 식부인이었다는 장난 섞인 조롱이다. 여인도 그제야 짐짓 성을 내며 반격에 나선다. 그러면서도 비틀어 따진다. 우린 처녀거늘 하필이면 두 지아비를 두었던 식부인에 비기냐는 질타다. 이쯤이면 서로에 대한 맛보기와 밀고 당기기가 거의 성사된 셈이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을 최치원이 슬기롭게 맞받아친다. 말을 앓으면 말았지 하는 말은 어

1) 「崔致遠」(박희병, 『한국한문소설』, 한샘, 1995, 43~44쪽). “良久, 二女齊至, 正是一雙明玉, 兩朵瑞蓮. 致遠驚喜如夢, 拜云: ‘致遠海島微生, 風塵未吏, 豈期仙侶, 猥顧風流? 輒有戲言, 便垂芳躅.’ 二女微笑無言. 致遠作詩曰: ‘芳宵幸得暫相親, 何事無言對暮春. 將謂得知秦室婦, 不知元是息夫人.’ 於是, 紫裙者恚曰: ‘始欲笑言, 便蒙輕蔑. 息婦曾從二壻, 賤妾未事一夫.’ 公言: ‘夫人不言, 言必有中!’ 二女皆笑.”

찌 그리도 이치에 맞느냐는 것이다. 최치원의 이 말에 두 여인이 “모두 웃었[皆笑]”으니 알아들었다는 뜻이다. 여기서 남녀의 사랑 놀음은 극적 타결이다.

사실 이 대목은 우리나라 초기 소설의 남녀 결연 장면으로 소개했지만, 여기서는 번역의 측면에서 조명해보기로 한다. 기본적으로 최치원과 자매의 혼령은 한시를 매개로 만남을 가졌다. 운자를 맞춘 문장의 수사적 기교로 각자의 作詩 능력을 인정한 동시에 그 안에 서로의 심경을 보듬는 정감을 담았다는 점에서 자연스런 만남의 계기와 함께 재자가인에 대한 독자들의 연민과 기대를 자아낸다. 그런데 인용문의 장면에서 남녀가 모두 웃으며 서로를 허여하는 대목은 진나부와 식부인 각각에 얽힌 배경을 모르고선 성립되지 않는다. 王仁의 아내인 진나부가 임금의 유혹을 뿌리치며 자신의 남편을 사랑하는 약부시 『陌上桑』과 춘추시대 息侯의 부인인 식부인이 楚나라에 멸망된 후 그 아내가 되자 두 남편을 섬긴 자책으로 평생 말을 하지 않았다는 고사를 숙지해야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논어』 『先進』편에서 공자가 하는 말마다 이치에 맞았다는 閔子騫에 대한 평가까지 이해해야 한다. 요컨대 최치원은 늦봄 좋은 만남이라는 인사말에 두 여인이 보인 무반응을 진나부가 아닌 식부인이었다는 농으로 풀려다가, 하필이면 두 남편을 섬긴 식부인이냐는 투정 섞인 성토에 다시 민자건에 대한 공자의 평가로 두 여인의 기분을 풀어 준 것이다. 진나부에서 식부인으로, 그리고 민자건에 이어지는 작은 典故의 향연이다. 이로써 세 남녀의 지적 교양에 대한 서로의 재평가는 웃음으로 합격점을 매긴 셈이다.

이 이야기는 중국의 『六朝事跡編類』 권13 <쌍녀분> 조목에 실려 국적 논쟁도 있었지만, 현재는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문인이 서사화시킨 작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인용문의 대목은 쌍녀분에는 없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를 『수이전』에 수록하는 과정에 관계하였던 『최치원』의 작자는 적어도 중국의 전고와 역사, 경서에 관한 이해가 깊었음에 분명하

다. 그리고 이를 우리의 서사 환경에 안착시키려는 광의적 의미의 번역 단계가 필요하였기 마련이다. 이처럼 소설과 같은 흥미위주의 문학 양식에서도 동아시아 한문문화권의 교양이 없다면 독자에게 충분한 감흥을 제공하거나 유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중국 주변국의 경우 한문 교양이 필수이며 이를 위한 학습, 그리고 이를 위한 번역과 이해의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조선전기 표기수단의 파천황을 이룬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와 반포에 이은 번역의 과정을 당시 문인들의 기록 자료로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2. 자국 표기 수단의 탄생과 번역의 시작

동아시아의 문명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문화적 자장을 중심으로 전개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문으로 표기된 기록물의 탄생, 그리고 이를 통한 동아시아 봉건 왕조들의 국가 형태와 통치 행위들이 그 표기 형식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국 문자를 아직 형성하지 못했거나 소유 하였던더라도 그 근간은 한문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중국 문명의 영향력은 지대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의 한문 중심의 문화적 적층은 문인이자 학자였던 지식인들의 모범으로써 형식과 사상에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각국이 한자 중심으로 예속되어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한자문화권에 속하면서도 저마다의 개성을 지닌 독자성을 유지하기 마련이었다. 우리의 경우 1443년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 그리고 1446년의 반포와 함께 그 뚜렷한 독자성을 보이기 시작한다.

훈민정음의 출현으로 표기수단이 분기하는 이원적 구도가 형성되었지만, 그럼에도 한자는 여전히 주도권을 지니고 있었다. 諺文, 암글로 불리

는 것에서도 그 일단을 확인할 수 있듯 한문은 여전히 상층의 공식적 지위를 지님과 동시에 국제적 통용의 권위를 가졌다. 한글은 하층의 표기수단이자 여성의 표현수단이였다. 하지만 우리의 말과 생각을 우리의 글로 표기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전개되었으며, 그 과정에 그간 쓰이던 한문을 한글로 바꾸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한문이 우리 고유의 문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말과 글이 괴리되었고, 한문의 학습은 물론 후속 세대의 양성 등에 필요한 한문 이해의 前 과정이 진작에 존재하였다.

경서의 句節을 句讀라고 한다. 중국에는 따로 方言이 없고 일상 언어가 그대로 文字가 되기 때문에 글귀 뉘 곳에 구두만 찍어 읽는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처럼 原文 이외에 구두를 방언으로 만들어 읽으며 懸讀라 하지 않는다. 속칭 懸吐라 하는데 토를 달아 읽지 않으면 글 뜻을 알기가 어렵다. 그 때문에 그것을 口訣이라고도 한다. 신라 弘儒侯 薛聰이 방언으로 九經을 풀이하여 후학들을 가르쳤다. 우리나라 유학자에서 가장 순수한 이로는 홍유후를 벗어나는 이가 없기 때문에 高麗朝에서 文廟에 從祀한 것이다.

그가 우리말로 경을 풀이한 것은 분명 구절로 만들었을 것인데 전하지 않고, 지금은 다만 吏讀【吏道라고도 함】가 있을 뿐이다. 즉, 文簿와 書牒 등 글귀 떼는 곳에 우리말로 토를 달아 문장을 이루어서 아전들이 관청에 보고하는 데 편케 하였으니, 그 이른바 九經을 풀이한 것도 이러한 것일 것이다.

홍유후의 시대는 곧 唐 나라 때였으므로 그 경서를 해석한 것이 반드시 唐朝에서 전해 온 구두일 것이며, 경서의 뜻도 중국 先賢들이 서로 전수하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인데 마침내 전해지지 못하였으니 우리 儒家의 불행이다.²⁾

2)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경사편 1, 경전류 3, 經傳雜說』, <經書의 口訣과 本國正韻에 대한 변증설>(고전간행회본 권 34), “經書句節曰句讀. 中國則無方言, 而尋常言語, 已具文字, 故於句節處, 點句讀讀之. 故無如我東之原文外, 句讀作方言以讀之, 曰懸讀也. 俗稱懸吐. 無此懸讀, 則文義難解. 故更名曰口訣. 新羅弘儒侯薛聰, 以方言解九經, 教授後學. 東儒之最醇, 無出其右, 故麗朝從祀文廟. 其方言解經者, 必爲口訣而無傳焉, 今只有吏讀. 【或稱吏道】 卽簿牒句節處, 以方言

이규경의 분석은 한문이라는 표기수단이 중국의 語音에 기초해 발달하였기에 그 자체로 단절이 없지만, 우리의 경우 方言 즉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문장기호와 같은 구두점이 아닌, 번역과 이해를 보다 쉽게 돕는 구결의 특수한 방식을 통한 현토 작업이 개입하였다. 이로써 중화의 문화권에 연계된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었고, 아편을 벗어난 하나의 문명국가로 인정되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설총이다. 최치원의 등장 이전에 한문학의 터전을 마련한 그를 통해 중국의 주류 철학체계인 儒學의 구경이 번역된 것이다. 구경에 대한 이해는 이미 있었지만, 그의 구결을 통한 번역 덕에 후학 양성의 기준과 틀을 마련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포상으로 문묘 종사라는 영예를 얻었다. 『삼국유사』에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明經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전수하여 끊이질 않는다.[至今海東業明經者, 傳受不絕.]”라고 하여 사후 600년이 지난 설총의 번역 업적이 갖는 위상을 언급한다. 이규경 역시 중국 본토의 경서 구두와 이해를 따랐을 설총 구결의 부재를 “유가의 불행”으로까지 안타까워하였다. 그만큼 그의 역할이 중요하였음을 의미하며, 대중들의 번역의 요청이 어떠하였는지 짐작된다.

이와 같은 과정은 바로 번역의 탄생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번역의 문제를 언급하며 유학에 비중을 둔 듯하다. 하지만 설총이 중국 고승들이 海東疏로 일컬었다는 『大乘起信論疏』와 『金剛三昧經論』의 주해서를 저술한 신라의 고승인 元曉의 아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儒佛의 번역 작업이 이들 부자와 관계되고 있어 설총의 구경에 대한 구결이 우연이 아님을 알게 된다. 이규경은 인용문의 마지막에 우리의 현토 방식을 소개하면서 일본의 片假字를 우리의 현토와 유사한 방식

懸讀, 衍成文字, 便於吏隸之告官, 其所謂解九經者, 恐如是也. 弘儒之世, 卽唐時也, 其解經必取唐朝流來之句讀, 經義亦不失中原先賢之相傳授, 而竟無所遺傳, 則吾儒之不幸也.”

으로 언급해 중국 주변국들의 문화 이해와 번역을 지적하였다.³⁾ 실제 불교의 경우 불전에 대한 오랜 연구와 高師들의 노력이 신라에서 고려로 이어지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불교의 경우 신라와 고려를 거치며 국가 차원의 지위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교리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축적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불전은 한문으로 기록되었고, 이 역시 梵語의 번역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重譯의 난관이 존재한다. 불전의 경우에도 번역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더구나 한문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경우는 차치하더라도 여전히 기층의 僧俗에 대한 교리 전달과 교육 과정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설총이 그러하였듯 불가에서도 구결의 방법을 통한 경전의 교육과 전승 방안이 모색되었음은 당연하다. 다만 이들은 보다 정교한 방식을 발전시켰는데 釋讀口訣과 音讀口訣이다. 현토의 방식이 아닌 구두점을 통한 표기라는 점에서 點吐口訣이라고도 한다.⁴⁾ 설총의 경우 현전하지 않아 추정할 뿐이지만 아마도 신라 당대의 鄉札 방식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후 전개된 불전의 구결 방식, 특히 석독구결은 엄청난 수준을 이루었다고 한다. 우리말과는 다른 한문의 어순을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구두점을 찍는 위치에 따라 해석 순서를 표기할 수 있도록 고안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한문표기와 우리말의 어순이 다르다는 점은 지식의 이해와 전파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이 점에서 우리만의 표기체계가 없는 상황은 口頭로 불교의 심오한 교리를 이해하고 전달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기 마련

3) 이규경, 같은 글, “是我東所謂吐, 則如諺音 ㅎ고, 則借爲訓 ㅎ, 取爲字首兩點 ㅍ; 借古訓고, 取古字尾 ㅍ, 合爲 ㅍ之類. 如日本片假字, 書經史句讀旁, 若我東吐, 而便作口訣. 按片假字, 『和漢三才圖會』片假字撮文字半旁作之. 但千、子、井、三四字, 其訓無深意, 只本以呂波取其半字, 如伊字取 ㄷ, 呂字取 ㅍ, 半字取 ㅍ, 仁字取 ㄷ, 合以成片假字, 以便讀訓, 若我 ㅍ者也.”

4) 장경준, 『『瑜伽師地論』 점독석독구결의 해독 방법 연구』, 연세대학교, 2005; 김지오, 『음독구결의 번역학적 이해』, 『한국 고전번역사의 전개와 지평』, 점필재, 2017.

이다. 그렇다면 보다 정확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교리 전달과 교육 방식이 요청되었을 것이고, 이때 석독구결이 등장하였을 것이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석독구결이 주류를 이루다 13세기 말에서 14세기 초에 음독구결로 전환된다고 한다. 이런 변화는, 음독구결이 현토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일정한 장점을 포기한 듯도 싶다. 그런데 이 시기는 고려 불교계가 선종을 기반으로 信仰結社가 일어난 데다, 선종의 경우 우리말 어순 체계를 고려한 석독구결보다는 대중 전파에 수월한 음독구결을 중시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음독구결 자료에는 『楞嚴經』, 『圓覺經』, 『證道歌』의 선종 계열이 많고, 교리의 이해를 중시하는 敎學佛敎에서 禪佛敎로의 전환을 의미하기도 한다.⁵⁾

이렇게 볼 때 훈민정음의 창제 이전까지의 한문에 대한 이해에는 일정한 과정이 보인다. 신라의 이두와 향찰이 관용 문서와 문학 창작에 특화되어 우리말의 기록을 돕기 시작했다면, 이들의 활용으로부터 구결의 현토 방식이 자리를 잡아 불교와 유교의 경전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 불교의 경우 심성에 관한 심오한 해석과 변증에 힘썼다는 점에서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석독구결이 고안되었고, 14세기 불교계의 체질 변화와 함께 음독구결이 유가의 현토와 함께 우리의 翻譯場을 형성한 것이다. 우리말 어순을 고려한 석독구결을 개발하였음에도 복잡한 활용방식과 불교계의 변화로 이를 폐기한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는 불교가 아닌 유교를 국시로 삼은 조선의 건국은 또다른 전기가 되었다. 비록 문자를 담당할 상층 지식인들은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새로운 번역의 표기수단이 요청되어야 할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결국 한글이라는 표기수단의 등장과 함께 보다 직접적인 번역인 諺解가 그 시작을 알렸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언해가 단순히 한문을 한글로 전환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諺解廳과 刊經都監과 같은 전

5) 김지오, 같은 글, 42~45쪽.

문 기관의 설치에서도 알 수 있듯 번역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며, 그 자체로 하나의 국가사업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가적 번역 사업인 언해의 과정은 한문의 번역이라는 외연적 면모와 함께 그 과정은 물론 내부의 실상과 관계된 문화적 면모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한다. 다만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1443년(세종 25)과 훈민정음해례본을 제정해 반포한 1446년(세종 28) 이후 세종이 승하한 1450년(세종 32)의 과정, 그 뒤를 이은 文宗과 端宗이 각각 2년이라는 짧은 재위 기간을 거쳤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14년의 재위 기간을 가진 世祖 시대의 언해 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더구나 세조대의 언해 과정에는 불교 관련 번역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유교 경서에 비해 불전에 대한 이전 시기의 성과가 진작 축적되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유교 국가를 표방한 조선에서 불전 언해는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 점에서 그 주변을 당시 문인지식인의 기록으로 접근해 보기로 한다.

3. 조선 전기 국가사업으로서의 출판과 불전 언해

조선의 건국은 원명교체기라는 동아시아의 문명적 전환에 연계되어 변혁을 이루었다. 그 대표적 사례의 하나가 士大夫 세력의 등장이다. 재야에서는 선비[士]로 조정에서는 大夫로 불렸던 때문인데, 이는 달리보자면 재야에서 지탱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과 국정을 담당할 학적, 실무적 능력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⁶⁾ 그리고 그 구심에 유학의 철학적 근거가 자리하여, 이전의 불교와도 차별을 갖게 되었다. 거칠게 말하자면 불교 문명에서 유교 문명으로의 전환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국가는 새로운 사회에 대

6) 이우성, 「이조 사대부의 기본성격」, 『한국의 역사상』, 창작과비평사, 1982.

한 준비와 정비가 필요하였고, 鄭道傳과 같은 인물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태종께서 永樂 元年(1403)에 좌우에게 이르시기를, “무릇 나라를 다스리자면 모름지기 典籍을 널리 보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해외에 있어 중국의 서적이 드물게 전해진다. 또 板刻으로 한 것은 쉽게 마모되기 때문에 천하의 서적을 모두 새기기가 어렵다. 내가 구리를 부어 글자를 만들고자 하니 이로써 서적을 인쇄해 널리 전파한다면 진실로 그 이익이 무궁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이에 古註, 『詩經』, 『書經』과 『左氏傳』의 글자를 써서 활자를 鑄造하니, 이것이 주자소가 설치된 이유이다. 이때 만들어진 것을 ‘丁亥字’라고 한다.⁷⁾

『태종실록』에서는 “새로 鑄字所를 설치하였다. 임금이 본국에 書籍이 매우 적어서 儒生들이 널리 볼 수 없는 것을 염려하여, 명하여 주자소를 설치”⁸⁾하였다는 언급만 확인된다. 아마도 태종의 “염려”에 관한 내용이 成俔의 기록에 남은 듯하다. 조선이 건국한 지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국가의 사상적 기반 확립에 서적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강조에 그치지 않고 기존의 목판인쇄가 갖는 한계를 활자 인쇄로 대체하고자 주자소 설치를 명한다는 점에서 국가적 서적 보급을 대대적으로 기획한 것이다. 성현은 세종의 경자자(1420), 갑인자(1434)와 문종의 임신자(1452), 세조의 을해자(1455)와 을유자(1465) 등이 제작된 사정을 연이어 전하고 있다.

물론 활자로 『大學衍義』를 인쇄하기도 하였으나,⁹⁾ 목판이 보다 보편적

7) 成俔 지음, 김남이·전지원 외 옮김, 『慵齋叢話』, 휴머니스트, 2015, 368~369쪽(원문 665쪽), “太宗於永樂元年, 謂左右曰: ‘凡爲治, 必須博觀典籍, 吾東方在海外, 中國之書罕至, 板刻易以剝缺, 且難盡刻天下之書, 予欲範銅爲字隨所得而印之, 以廣其傳, 誠爲無窮之利.’ 遂用古註詩書左氏傳字鑄之, 此鑄字所由設也, 名曰丁亥字.”

8) 『태종실록』 3년(1403) 2월 13일 기사.

으로 사용되기는 하였다. 태종은 “처음으로 入仕한 사람에게 모두 朱文公의 『家禮』를 시험”해 보게 하고 평양에서 150부를 인쇄해 반사하였으니,¹⁰⁾ 유교의 실질적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대표적 사례이다. 심지어 상층 사회의 사례에 그치지 않았고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문제를 하층에 권장한 경우도 있다.

처음에 전 藝文館 大提學 李行이 『農桑輯要』 내의 養蠶方을 뽑아내어, 자기 스스로 경험하였더니 수확이 보통 때의 배나 되므로 드디어 板刊하여 세상에 행하게 하였다. 국가에서 民間이 중국어를 알지 못할까 염려하여 議政府 舍人 郭存中에게 명하여, 우리나라 말[俚語]을 가지고 『양잠방』 귀절에 夾註를 내게 하고 또 刊간하여 廣布하였다.¹¹⁾

이는 기록보다 2년 전인 태종15년의 사실로 『養蠶經驗撮要』를 말한다. 양잠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인데, 특기할 대목은 농서의 간행이면서 한문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말로 주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아직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이라는 점에서 “俚語”는 이두로 제작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가례』의 적용을 위한 사례와 함께 경서와 불전 위주의 번역이 국가 경제와 관계되는 하층의 실용적 측면과 연계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이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간행하도록 한 측면은 民官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농사의 특성상 실용성을 강조한 번역 사례로 특색을 갖는다. ‘훈민’정음을 염두에 둘 때 조선의 건국 기반과 관련된 한 특징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정작 훈민정음의 창제 이후 그 실제적 활용은 『月印釋譜』로 시작되었다는 점은 의아하기도 하다. 이 책은 세종의 『月印千江之

9) 『태종실록』 12년(1412) 10월 1일 기사.

10) 『태종실록』 3년(1403) 6월 9일, 8월 29일 기사.

11) 『태종실록』 17년(1417) 5월 24일 기사.

曲』에 세조의 『釋譜詳節』을 더한 것으로 세조5년(1459)에 목판 간행되었다. 간행과정에서 이후 세조가 될 수양대군의 서문에 자세하다.

옛 병인년(1446)에 昭憲王后께서 돌아가시자 서러워 슬퍼하시며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적에 세종대왕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薦導하는 데 轉經만한 것이 없으니, 네가 釋譜를 번역하여 만드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명을 받고서 더욱 생각이 넓어져 僧祐와 道宣 두 律師가 각각 석보를 만들어 놓은 것을 읽어 보았더니 간략하고 상세하지 못하기에 두 책을 아울러서 『석보상절』을 만들고 正音으로 번역하여 사람마다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세종대왕에게 진상하였더니 읽어 보시고 찬송하시며 ‘月印千江’이라 이름하셨다.

세종이 부인을 잃은 상심에 그 님을 위로하는 천도를 위해 전경 행사를 베풀면서 ‘석보’를 간행하고자 하였고, 3년 전에 창제한 훈민정음을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세종은 수양대군이 만들고 번역한 『석보상절』을 보고 『월인천강지곡』을 지었다. 이후 수양대군은 세조가 되어 아들 懿敬世子를 잃고 이때의 일을 떠올리며 이 둘을 합하고 앞에는 ‘훈민정음’ 언해본을 얹어 『월인석보』로 구성하였다. 훈민정음의 창제와 반포에 이은 언해의 첫 작업이 불전과 관계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楞嚴經』의 언해에 착수하는데 그 작업도 일시분란하다.

上이 입겨출 ㄷㄹ샤 慧覺尊者의 마기와시닐¹²⁾ 貞嬪韓氏 等이 唱準호야
닐 工曹參判 臣韓繼禧 前尙州牧使 臣金守溫은 翻譯호고 議政府檢詳 臣
朴槿 護軍臣 尹弼商 世子文學 臣盧思愼 吏曹佐郎 臣鄭孝常은 相考호고
永順君 臣溥는 例一定호고 司瞻寺 臣曹變安 監察 臣趙祉는 國韻 쓰고 慧
覺尊者 信眉 入選 思智 學悅 學祖는 翻譯 正音은 後에 御覽호샤 一定커
시닐 典言 曹氏 豆大는 御前에 翻譯 넘스오니라¹³⁾

12) 마기와시닐 : 따지다 밝히다.

세조의 구결에 혜각존자 信眉가 확인하여 1차 번역을 한다. 그리고 정빈한씨가 읽으면 한계희·김수온이 번역하여 이를 박진·윤필상·노사신·정효상이 살피고 교정해 2차 번역을 거친다. 이부가 범례를 정해 조변안·조지가 한글음을 적고 신미·사지·학열·학조가 번역을 바로 잡는 3차 번역과 함께 다시 세조가 확인한 후 번역 결과물을 읽는 과정으로 4단계의 최종 번역이 끝난다. 세조와 신미의 기본적인 번역의 기초를 세우면 문신들이 주된 작업을 진행해 신미를 포함한 불승의 교정과 주관자로서의 세조가 최종 확인하는 과정이다. 발문에서 세조는 “옛날 正統 무오년(1438, 세종 20)에 선대왕 세종께서 『능엄경』을 보시고 나서 기사년(1449, 세종 31)에 번역하여 널리 반포하시고자 나에게 방법을 강구하라 명”받았던 일을 실행한 것이라고 한다. 언해는 세자가 즉위한지 8년인 1462년에 이루어지지만 이미 10여 년 전에 기획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훈민정음 창제에서 멀지 않다. 그리고 이제는 보다 체계적이어서 “처음으로 刊經都監을 설치하고, 都提調·提調·使·副使·判官을 두”¹⁴⁾고 시작한 첫 사업이다. 성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세조께서 內經廳을 설치하고 조정의 신하들을 모아 불경을 베껴 쓰게 했다. 우리 伯兄은 益城君 洪應, 仁齋 姜希顔, 東萊君 鄭蘭宗, 稚圭 趙瑾, 李期叟 등과 함께 항상 궁 안에만 있으면서 밖으로 마음대로 다니지 못했다.¹⁵⁾

국왕 세조의 주도로 진행된 불전의 언해 사업은 내경청으로도 불렸던 간경도감을 설치함으로써 국가사업이 되었다. 그리고 관련된 문신들은 내경청에 소속되어 번역만이 아닌 불경을 옮겨 적는 ‘寫經’에도 참여하였다.

13) 세조, 『楞嚴經診解』 권10권, 『御製跋』.

14) 『세조실록』 7년(1461) 6월 16일(을유) 기사.

15) 成俔, 같은 책, 328쪽(원문 650쪽), “世祖設內經廳, 聚朝士寫經. 伯氏與洪益城·姜仁齋·鄭東萊·趙稚圭·李期叟輩, 常在宮禁, 不得出外浪遊.”

특히 성현의 큰형인 成任을 비롯한 사경에 참여한 이들은 당대에 서예로 명성을 얻었던 인물들이다. 대략 2달에 걸쳐 10권 10책의 『능엄경언해』가 일사분란하게 완성을 보았고, 언해를 위해 국가의 인재와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4. 유교 경전 구결과 그 기록들

태종의 국가 문화 기틀 마련을 위한 노력과 농가서에 미친 번역의 관심, 그리고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가 가져온 일대 전환은 금속활자의 지속적인 제조와 함께 지식의 창달을 이루는 듯하다. 아이러니한 점은 유교를 동력으로 삼은 조선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과 그 유지를 받은 세조의 기획이 불전에만 관심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종은 이조에 “금후로는 吏科와 吏典의 取才 때에는 訓民正音도 아울러 시험해 뽑게 하되, 비록 義理는 통하지 못하더라도 능히 습字하는 사람을 뽑게 하라.”는 傳旨를 내리고 있다.¹⁶⁾ 훈민정음의 전면적 시행을 예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이전에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관련 작업을 지시한다.

集賢殿 校理 崔恒, 부고리 朴彭年, 副修撰 申叔舟·李善老·李塏, 敦寧府 注簿 姜希顔 등에게 명하여 議事廳에 나아가 諺文으로 『韻會』를 번역하게 하고, 東宮과 晉陽大君 李瑋·安平大君 李瑢으로 하여금 그 일을 관장하여 모두 성상의 판단에 품의하도록 하였으므로 賞을 거듭 내려 주고 供億하는 것을 넉넉하고 후하게 하였다.¹⁷⁾

16) 『세종실록』 28년(1446) 12월 26일(기미) 기사.

17) 『세종실록』 26년(1444) 2월 16일(병신) 기사.

2달 전에 창제한 훈민정음으로 『운회』를 번역토록 한 것이다. 한문을 주요 표기수단으로 하고, 학문의 학습과 교육을 중심으로 삼았지만 한자의 운과 음에 상당한 변화와 차이가 생겨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류는 단적으로 유교 경서의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운회』는 『古今韻會舉要』의 약칭으로 그 번역이 완성되었는지는 미상이다. 하지만 3년 후에 『東國正韻』의 서문을 신숙주가 바치고 있어 작업이 계속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숙주는 여기서 韻書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우리 나라는 안팎 강산이 저절로 한 구역이 되어 풍습과 기질이 이미 중국과 다르니, 호흡이 어찌 중국음과 서로 합치될 것이라. 그러한즉, 말의 소리가 중국과 다른 까닭은 이치의 당연한 것이고, 글자의 음에 있어서는 마땅히 중국음과 서로 합치될 것 같으나, 호흡의 돌고 구르는 사이에 가볍고 무거움과 열리고 닫힘의 동작이 역시 반드시 말의 소리에 저절로 끌림이 있어서, 이것이 글자의 음이 또한 따라서 변하게 된 것이니, 그 푼은 비록 변하였더라도 淸濁과 四聲은 옛날과 같은데, 일찍이 책으로 저술하여 그 바른 것을 전한 것이 없어서, 용렬한 스승과 속된 선비가 글자를 反切하는 법칙을 모르고 자세히 따져 보는 요령이 어두워서 혹은 글자 모양이 비슷함에 따라 같은 푼으로하기도 하고, 혹은 前代의 임금이나 조상의 이름을 피하여 다른 푼으로 빌어서하기도 하며, 혹은 두 글자로 합하여 하나로 만들거나, 혹은 한 음을 나누어 둘을 만들거나 하며, 혹은 다른 글자를 빌려 쓰거나, 혹은 點이나 劃을 더하기도 하고 감하기도 하며, 혹은 漢音을 따르거나, 혹은 속음[俚語]에 따르거나 하여서, 字母·七音과 淸濁·四聲이 모두 변한 것이 있다.¹⁸⁾

한마디로 한자음에 대한 통일안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이다. 한자음에 관해서는 反切을 이용해 도움을 받지만 이마저도 정확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성현은 이와 같은 사정을 “산나물 치고 산에서 나지 않는 것이 없는

18) 『세종실록』 29년(1447) 9월 29일(무오) 기사.

데 삼주[朮芽]의 싹을 ‘山菜’라고 부르고, 물고기 치고 물에 살지 않는 것이 없는데, 송어[秀魚]를 ‘水魚’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속의 발음이 그러하기 때문이다.”¹⁹⁾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운서를 훈민정음으로 번역해 유통한다면 전국적인 기준점이 서기 마련이다. 세종의 문명 전환 전략의 하나라고 하겠다. 그리고 바로 이듬해에는 집현전을 통해 본격적으로 유교 경서의 번역에 착수하고 있다.²⁰⁾ 하지만 불전과는 달리 경서의 언해는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담당자가 有故로 교체된 데다 결과에 대한 전언을 확인할 수도 없다. 하지만 이 역시 세조에 의해 일정한 성과를 보게 된다. 이에 대한 崔恒의 소중한 기록이 있다.

『주역』의 책은 가장 정묘하고 은미해 천하의 지극한 神性이 아니면 누가 열어 보이겠는가. 우리 전하(세조-인용자)는 온갖 정사의 여가에 구결을 暫定하였으니 四聖의 뜻이 손바닥을 가리키듯 환해졌다. 또 『소학』이 학자가 道에 들어가는 문으로 가장 간절하다 여겨 역시 스스로 구결을 정하였다. 그리고 『시경』은 河東君 臣 鄭麟趾(1396~1478), 『서경』은 蓬原君 신 鄭昌孫(1402~1487), 『예기』는 高靈君 신 申叔舟(1417~1475), 『논어』는 漢城府尹 신 李石亨(1415~1477), 『맹자』는 이조판서 신 成任(1421~1484), 『대학』은 中樞府同知事 洪應(1428~1492), 『중용』은 형조판서 신 姜希孟(1424~1483)이 구결하였다. 이미 일을 마치자 또 中樞府知事 신 丘從直(1404~1477), 同知事 신 金禮蒙(1406~1469), 工曹參判 신 鄭自英(?~1474), 吏曹參議 신 李永垠(1434~1471), 戶曹參議 신 金壽寧, 前右承旨 신 朴槿(1434~1509) 등에게 論難하고 교정케 하고, 핵심처에 당해서는 모두 성상의 판단에 품부 받아 이에 典校署에 刊印해 반포하였다. 오직 『주역』만은

19) 성현, 같은 책, 377쪽(원문 669쪽), “莫非山蔬而朮芽, 名曰山菜; 莫非水族而秀魚, 謂之水魚, 俗語然也.”

20) 『세종실록』 30년(1448) 3월 28일(계축), “尙州使 金鉤를 역마로 부르다. 鉤는 상주사가 된 지 반년도 못되었는데, 集賢殿에서 어명을 받들어 諺文으로 『四書』를 번역하게 하였다. 직제학 金汶이 이를 맡아 했었으나, 汶이 죽었으므로, 集현전에서 鉤를 천거하기에 특명으로 부른 것이며, 곧 判宗簿寺事를 제수하였다.”

經文의 아래 程子와 朱子の 傳(주석-인용자)을 붙여 간인하였다.²¹⁾

『주역』과 『소학』의 구결을 세조가 직접 결정하고, 사서삼경을 합당한 문신에게 구결을 맡겼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구결에 대한 正誤를 담당할 문신을 정하고 논란이 되는 핵심 대목에서는 세조가 결정을 하였다고 한다. 『주역』만은 예외적으로 책의 성격상 정자와 주자의 주석을 함께 실어 그 奧義를 살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는 것이다. 세조 재위 중에 이루어진 사실임에는 분명한데 정확한 시기는 기록하지 않았다. 다만 실록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조는 유교 경서의 구결에 앞서 “禮曹로 하여금 본국의 先儒가 정한 四書五經의 口訣과 鄭夢周의 詩經 구결을 널리 구하게 하였다.”²²⁾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구결의 대의를 선대 학자들의 견해로 파악하였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中樞府 僉知事 鄭自英·行上護軍 丘從直·成均館大司成 金禮蒙을 불러서 『詩經』·『書經』의 口訣을 校正하게 하였다.”²³⁾는 기록이 확인된다. 최항이 남긴 기록에서 김수녕과 박건을 제외하고는 “논란하고 교정”하였다는 인물들과 일치하는 점에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간인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²⁴⁾

21) 崔恒, 『太虛亭文集』 권2, 『經書小學口訣跋』. “『易』之爲書, 最精妙微隱, 非天下之至神, 孰得而開示. 恭惟我殿下萬機餘閑, 暫定口訣, 四聖之旨, 柄如指掌. 又以『小學』尤切於學者入道之門, 亦自定訣. 『詩』則命河東君臣鄭麟趾, 『書』則蓬原君臣鄭昌孫, 『禮』則高靈君臣申叔舟, 『論語』則漢城府尹臣李石亨, 『孟子』則吏曹判書臣成任, 『大學』則中樞府同知事臣洪應, 『中庸』則刑曹判書臣姜希孟訣之. 既訖, 又命中樞府知事臣丘從直·同知事臣金禮蒙·工曹參判臣鄭自英·吏曹參議臣李永垠·戶曹參議臣金壽寧·前右承旨臣朴健等, 論難校正, 每遇肯紫, 悉稟睿斷, 迺命典校署, 印而頒之. 唯『易』則正經之下, 并附程·朱之傳印之.”

22) 『세조실록』 11년(1465) 11월 12일(병진) 기사.

23) 『세조실록』 13년(1467) 12월 2일(갑오) 기사.

24) 유사한 내용의 기록이 같은 해 12월 13일(을사) '구종직 등에게 『시경』을 교정케 하고, 이길보 등에게 활 만드는 법을 논하게 하다'라는 기사에 다시 등장한다.

확인되는 사례로는 “임금이 文宣王에게 謁廟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고, 친히 정한 『御定周易口訣』을 頒布하였다.世子로 하여금 여러 생도들 가운데 끼이게 하고 드디어 크게 饗宴을 베풀었다.”²⁵⁾고 한다. 주역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기울인 듯하다. 다만 『시경』과 『서경』에 대한 교정이 『어정주역구결』의 반포 전후로 지속되고 있어 경서마다 간행한 시기에는 차이가 있는 듯하다. 세조는 이후로도 “임금이 여러 宰樞와 李永垠·金壽寧·丘從直·鄭自英·金禮蒙·安孝禮·崔灝元 등을 불러 술자리를 베풀고” 『어정주역구결』에 대한 논란을 자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²⁶⁾ 이때 성현이 兼藝文으로 매일 입시하여 세조를 모셨다고 하며 『어정주역구결』에 대한 토론에 대해 조금은 다른 견해를 보여준다.

만년에는 옥체가 편치 못해 잠을 잘 이루지 못했는데, 유신을 불러 글을 강론하기도 하였다. 또 어떤 때는 잠배 崔灝元과 安孝禮 등을 불러 각자의 재주를 겨루게 했다. 그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논쟁하거나 때로는 팔을 걷어 붙이고 옥설을 퍼붓는 등 못 하는 일이 없었다. 그런데도 상감께서는 밤낮으로 안석에 기대어 이를 듣고 보시니, 두 사람은 교만해져 성을 바라게 되었다. 그런데 벼슬이 내리지 않자 최호원이 은밀히 안효례에게 말하기를, “내가 승지가 되고 자네가 첨지가 되는 것이 어찌 이리도 늦는단 말인가?”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입을 가리고 웃었다. 상감께서 비록 무효함을 달래려고 이들을 부르셨으나 실상은 광대로 여긴 것이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크게 기용되기를 바랐으니, 당시 의론이 그들을 비루하게 여겼다.²⁷⁾

25) 『세조실록』 12년(1466) 3월 5일(병오) 기사.

26) 『세조실록』 세조 14년(1468) 8월 5일(임진) ‘안효례와 최호원이 정자영과 더불어 『어정주역구결』에 대해 서로 논란하다; 8월 10일(정유) ‘이영은, 김수령, 구종직 등을 불러 『어정주역구결』을 의논하게 하다’

27) 성현, 같은 책, 488~489쪽(원문 716쪽), “晩年玉體違豫不能寐, 或召儒臣講書, 或引雜類崔灝元安孝禮等, 各以其術相鬪, 口角流沫, 有時攘臂詆罵, 無所不至. 上亦連晝夜, 憑几而聽之, 二人驕傲望恩於不下, 灝元私謂孝禮曰: ‘吾之承旨汝之僉知何其遲也.’ 聞者無不掩口. 聖主雖因破寂而召進, 其實以俳優畜之, 而二人仰希大用, 時議鄙之.”

실록에는 이 두 사람이 “팔을 건어올리며 욕을 퍼붓는 등의 일”이 보다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세조의 속내를 성현은 “심심풀이”로 판단한 것이다. 세간의 평가에 따른 것이면서 세조 역시 경서에 대한 학술적 견해에 비중을 두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록에서도 그 자리에 함께하였던 구종직과 정자영에 대해 “모두 經學으로 顯達하였으나, 구종직은 아첨하고 학문은 박식하였으며, 정자영은 마음이 곧고 학문이 固陋하였다.”고 평하고 있어 성현의 견해와 부합한다. 이렇게 볼 때 세조의 간경도감을 통한 불전 언해는 그리 치우친 현상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유교 경서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5. 조선 전기 번역을 통한 문명 전환의 이면

본고는 불교와 유교의 경서 번역 과정을 통해 조선전기까지의 문명의 수용과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그 현장을 살펴보았다. 신라와 고려가 이룩한 불교 문명의 깊이는 석독구결에서 음독구결로의 형성과 전환 과정을 통해 엿볼 수 있었고, 유교 문명의 전환 과정에는 훈민정음의 창제를 통한 불전과 유교 경서의 언해가 세종과 세조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세조까지 살핀 유교 경서의 언해는 불전 언해에 비해 그리 순탄치 못하였다. 성현은 조선의 불교 쇠퇴 과정을 태종과 성종 시기의 두 계기로 지목한 바 있다.²⁸⁾ 태종이 사찰 노비를 혁파한 것과 성종의 이단 배척이 그것이다. 특히 성종대에 臺諫이 佛事를 극렬히 간언한 것도 한 계기로 꼽았다. 하지만 성현은 세종과 세조 시절에 여전히 고관과 선비의 집안에서 상례와 장례에 法席, 食齋, 僧齋라는 이름으로 불사가 성행했음도 지적한다.

28) 성현, 같은 책, 56~57쪽. 권8의 첫 번째 글(395~396쪽)에서도 유사한 언급을 하였는데, 태종이 12종파를 선종과 교종의 兩宗만 남긴 일과 성종의 엄격한 도첩제 시행이다. 반면 세조 때에는 불교의 폐해가 극에 달한 것으로 평하였다.

지금까지 불전과 경서의 번역을 통해 조선전기의 문명 전환 국면을 살폈지만 사실 유학이 정착하기에는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거리감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였음을 인지해야 한다. 성현은 이러한 습관이 ‘公卿’과 ‘儒士’에 의해 만연했다고 하니 당시의 정황이 대략 짐작된다. 하지만 유교 경서의 언해가 쉽게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작 국시로 삼은 유교의 正典을 번역하자면 그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데 그만큼 준비가 갖춰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현의 기록에서 성균관에 관한 언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릇 성균관에서 강학의 임무를 맡은 선생들은 자기 스승에게 배운 것을 한갓 입으로 따라 읊기만 할 뿐 文理를 알지 못했다. 또 자기 견해만을 고집하며 너무 완고해 말이 통하지 않았다. …… 강학하는 자리에 앉으면 시비를 다투다가 더러는 성낸 기색을 드러내기까지 하므로, 비록 문리에 통달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기세를 꺾을 수가 없다.²⁹⁾

유학의 후속세대를 제대로 양성해야 할 성균관의 선생들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유교 경전에 대한 학자들의 한 면모를 보여주며, 앞서 최호원과 안효례의 논란이 그 한 예이다. 불전 언해와 같은 번역의 일사분란함을 얻기 힘들다는 것이 문제였다. 더구나 경서 언해의 경우 과거 답안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성균관의 유생들이 이러한 선생에 대해 비난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성현은 스승을 비난한 성균관 유생들이 옥에 갇혀 국문을 받았던 성종대의 사건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³⁰⁾

29) 성현, 같은 책, 97~98쪽(원문 557쪽), “抵任函丈者, 受業於其師, 徒附口舌, 不知文理, 又執己見, 膠固不通. …… 常坐講堂, 爭相是非, 或至怒形於色, 雖有達理者, 不能折其鋒.”

30) 성현, 같은 책, 293~295쪽. 이 사건은 『성종실록』 13년(1482) 윤8월 20일 기사에서 확인된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다음 연구에 자세하다. 정출현, 『추강 남효온의 생

요컨대 아직 유교 경서의 언해에 대한 중론이 합의되기에는 아직 일정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성현의 기억에 남은 전환의 분위기는 “성종께서는 학문에 돈독하게 뜻을 두어 하루 세 번 강론했는데, 밤에는 홍문관에 입직하는 문사를 불러 더불어 강론³¹⁾했고, “성종은 학문이 깊고 넓으며, 文詞가 크고 드높았다.”³²⁾는 데서 읽혀진다. 당시 『東文選』, 『東國輿地勝覽』, 『東國通鑑』의 자국 문학과 지리, 역사를 집대성한 거질과 함께 교서관에서 인쇄한 30종에 달하는 도서 발간 목록을 자랑스럽게 전하였다. 성종대에 이르러서 문명 전환의 온전한 기틀이 잡힐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경우 중국 문명의 거대한 흐름과 역사를 함께 해왔다. 그만큼 한자문화권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점에서 오히려 한문을 적극 수용하고 높은 수준에 도달함으로써 자기 존재를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은 한문에 대한 이해 과정이며, 번역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신라 설총의 경서 구결로부터 최치원의 수준 높은 문학적 수준에서도 확인된다. 그리고 고려를 거치며 불교 중심 사회는 학적 역량을 불전의 번역에서 제고하였다. 다만 고유의 표기수단을 갖지 못한 관계로 이를 대신할 방식을 통해 불교의 교리를 전수하고 학습하였다. 석독구결이 그것인데, 이는 14세기를 넘어서며 선종이 불교계의 주도권을 얻으면서 수양과 대중을 고려한 음독구결로 경향을 옮겨갔다. 우리말 어순을 고려한 석독구결로 불교 교리의 이해를 중시하는 과정에서 불전에 대한 깊이를 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불교계의 역량을 기반으로 대중화 경향과 함께 음독구결의 간편함을 추구한 것이다.

이때 명청 교체기의 동아시아 전환과 함께 조선이 건국하며 새로운 국

에 자료에 대한 변증과 탐색』, 『대동한문학』 35집, 대동한문학회, 2011, 185~194쪽.
31) 성현, 같은 책, 120쪽(원문 566쪽), “成廟篤志於學, 三時講書, 乘夜又引玉堂入直之士, 與之講論.”

32) 성현, 같은 책, 117쪽(원문 565쪽), “成廟學問淵博, 文詞灑灑.”

면을 맞았다. 불교와 귀족 중심의 사회가 국왕과 사대부 주도의 유교 국가로 탈바꿈한 것이다. 더구나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와 반포는 문명 전환의 유용한 도구가 되었고, 번역의 혁신을 가져왔다. 물론 그 이전은 물론 이후로도 구결을 통한 번역은 여전히 유효하였다. 태종을 시작으로 유교 경전과 불전에 대한 구결 작업이 꾸준히 이어졌고,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함과 동시에 실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명 전환의 국가적 기획은 세조가 계승하여 유교와 불교의 경서에 대한 구결과 언해 작업을 직접 주도하였다. 나아가 농서, 의서, 관용 문서에도 적극 활용함으로써 독자적인 표기 수단을 통한 지식의 보편화를 기획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선 전기의 번역을 통한 문명 전환의 국가적 기획은 한자문화권의 공고함을 넘지는 못하였다. 이후 성종에 이르러 문화적 전성기를 맞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유교 중심의 국가 체계를 확립했다는 점에서는 다양성을 잃었다고 하겠으며, 번역을 통한 자기화에서는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으나 한글 번역의 보편화와 대중화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조선전기의 문명전환은 국왕 중심의 국가 주도이며, 집현전 출신의 학자들과의 협업이었다는 점에서 그 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재조명 과정에서 조선의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쇄신을 새롭게 이해하고 설명할 방법론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무봉, 「조선시대 간경도감 간행의 한글 경전 연구」, 『韓國思想과 文化』 23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4.
- 김지오, 「법화경 권3 음독구결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04.
- _____, 「음독구결의 번역학적 이해」, 『한국 고전번역사의 전개와 지평』, 점필재, 2017.

- 남풍현, 『국어사를 위한 구결연구』, 태학사, 1999.
- 박희병, 『한국한문소설』, 한샘, 1995.
- 성현 지음, 김남이·전지원 외 옮김, 『용재총화』, 휴머니스트, 2015.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역주 능엄경언해1·2』, 세종대왕기념사업부, 1996.
- _____, 『역주 능엄경언해9·10』, 세종대왕기념사업부, 1998.
- 안병희, 「세조의 경서 구결」, 『국어사자료 연구』, 문학과지성사, 1992.
- 이우성, 「이조 사대부의 기본성격」, 『한국의 역사상』, 창작과비평사, 1982.
- 장경준, 『『瑜伽師地論』 점토석독구결의 해독 방법 연구』, 연세대학교, 2005.
- 장윤희, 「석독구결 및 그 자료의 개관」, 『구결연구』 12집, 구결학회, 2004.
- 정재영, 「한국의 구결」, 『구결연구』 17집, 구결학회, 2006.
- 정출현, 「추강 남효온의 생애 자료에 대한 변증과 탐색」, 『대동한문학』 35집, 대동한문학회, 2011.

투고일 2018. 7. 31 심사시작일 2018. 8. 20 게재확정일 2018. 9. 12

Abstract

The birth of Korean characters and the translation
of the Buddhist scriptures of King Sejo

Shin, Sang-phil

In our case, we have been together with the great flow and history of Chinese civilization. It has been closely related to the culture of Chinese characters. In this respect, it was rather clear to accept Chinese texts and reach a high level. And the process is a process of understanding Chinese texts, and the history of translation. This can be confirmed from the level of the literary level of Choi Chun Won from the Silla Sungchong Sungjae. And through consideration, the Buddhist centered society increased the competence of Buddhism in Buddhist translation. However, because they did not have their own means of writing, they taught and taught Buddhist doctrine through a method to replace it. This was the end of the 14th century, when Zen Buddhism took the initiative of Buddhism and shifted to the poetry of conscience in consideration of the cultivation and the masses. In the process of attaching importance to the understanding of Buddhist doctrine by virtue of the Mokdokwon consciousness of Korean word order, I could deeply add to the Buddhist image. Based on this Buddhist power, it pursued popularization and simplicity of poetry.

At that time, the Chosun was founded and the new phase was met with the conversion of the Myeongcheong Exchange to East Asia. Buddhism and aristocratic society have been transformed into Confucian states led by the King and the Soviet Union. Moreover, the Hunminjeongeum inference and banpo of Sejong became useful tools of civilization transformation and brought about innovation of translation. Of course, the translations from before and after the translation were still valid. Starting with Taejong, Confucian scriptures and Buddhist scriptures continued to work, and Sejong sought to utilize the Hunminjeongeum at the same time as practical use.

This national plan of civilization conversion was succeeded by Sejo, and directly led the work of Confucianism and Buddhist worship. Furthermore, it was planned to use universalization of knowledge through independent marking means by positively utilizing it in agricultural documents. However, the national project of the conversion of civilization through the translation of Chosun's biography did not go beyond the recognition of the Chinese character culture. Although it has been estimated that it has reached the cultural peak during the Sungjong period, it has lost its diversity in that it established the national system of Confucianism. In the magnetization through translation, the understanding of the Confucian scriptures deepened, but the universalization and popularization of Hangeul translation failed. It is because.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process in detail, since the conversion of civilization of Chosun dynasty is led by the king and the collaboration with scholars from prehistoric times. And in the course of the re-examination, we must find a methodology to understand and explain various efforts and reforms for the construction of a new society of Joseon.

Keywords The first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Translation, Transition of Civilization, Chinese Calligraphy, Hunminjeongeum, eonhae, Confucian Scriptures, Buddhist Scriptures.

